

한국에 근무하는 영어 원어민 교사에 대한 국내 영어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The Perceptions of Korean English Teachers toward Native English Teachers

강문구

공주대학교 영어교육과

Mun Koo Kang(kangmunkoo@hanmail.net)

요약

세계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교육에서의 원어민 교사 수업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질 높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원어민 수업으로 가능한지 알아보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영어교육에서의 원어민영어교사 활용 종합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 연구에서 한국인 협력교사들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식은 영어 원어민 교사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원어민 교사 | 원어민 교사 채용 | 영어정책 | 영어의 향상 |

Abstract

The study is conducted as basic research to verify professional expertise and abilities of native English teachers who are teaching in Korea in objective and scientific ways. It aims to introduce a qualification certificate system which seeks to measure qualification by abilities, and to boost professionalism and morale, and finally, contributes to reinforcement of public English education in Korea. Therefore, this basic study is on the 'Practical use of native English teachers and general analysis.' The study seeks to evaluate the management system of English native teachers and find ways to improve it. Also,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ould practic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English education.

■ keyword : | Native English Teacher | Employment of Native English Teacher | English Education Policy | Improvement of English

I. 서론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이 영어라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는 바,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교육의 일선에 원어민 보조 교사를 일선 학교 수업에 투입하여 학생들의

질 높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꾀하였다. 그 일환으로 최신 외국어 교육의 기법과 수업 모형, 교재의 개발을 목적으로 원어민을 채용하는 것은 외국어 담당 교사의 영어 소통 능력과 교육수준의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다[6].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추진 계획으로 실용영어교

접수일자 : 2013년 08월 01일

수정일자 : 2013년 08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8월 13일

교신저자 : 강문구, e-mail : kangmunkoo@hanmail.net

육의 강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으로 학교영어교육에도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영어전용 교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을 개정(2008. 12)하였고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강화하여 매년 3천여 명의 교사를 해외대학 등과 연계한 체계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별 자발적인 영어 공교육 강화 실천을 유도하며 의사소통 중심으로 균형적인 수업과 평가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신장에 힘을 쏟고 있다.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2005. 5)’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확대를 2010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인을 배치하고, 2012년까지 고등학교에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100% 배치하는 확대 정책을 지방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졌다[1].

원어민영어교사¹⁾는 원칙적으로 한국인 협력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영어교재와 교수자료 개발 및 영어교수법 향상과 확대, 문화적 자각의 고양,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원어민영어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규모는 매년 2,000억 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투자대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어민 교사가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주된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시간에 영어에 관련된 환경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함이며, 한국인 선생님이 만들어 내기에 부족 할 수도 있는 영어권 문화와 특성을 잘 살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어민 교사의 수업은 학생들이 정확성에 기반을 둔 수업보다는 유창성과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유의미 할 수 있다.

정길정, 민찬규, 박매란(1999)은 원어민 교사 수업을 통해 목표언어에 노출 될 수 있고,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직접 배울 수 있어서 학습의 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그들과 접촉할 때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4].

따라서 언어교육의 효과성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정의적 측면, 나아가 인격형성의 측면까지 교사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어민영어교사의 직업전문성에 따른 제반사항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직무만족도는 그들의 교수활동으로 연결 될 것이다[3].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의 배치를 늘려가고 있는 정책에 발맞추어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과학적 접근의 ‘도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어민영어교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와 상황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본 연구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 원어민영어교사 현황

2.1 원어민영어교사 제도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원어민영어교사에 의한 학교교육은 1882년 11월에 외국과의 교섭 및 해관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조선 정부가 설립한 동문학(일명 통번학교)때 시작되었다. 당시의 강의는 영국인과 중국인이 하였는데, 이들은 한국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은 직접식 교수법 형태의 영어로 진행되었다. 그 후 육영공원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신학문의 모든 과목들을 영어로 가르쳤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원어민 교사들을 학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5]. 그 후 1980년대 국제평화봉사단들에 의해서 초청된 원어민영어교사들이 투입되었다. 1981년에 미국평화봉사단(Peace Corps)으로 온 청년 200여명이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1996년까지의 활동이 원어민보조교사들을 배

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원어민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자격증의 수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정식교사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원어민보조교사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며, 한국인 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EPIK 실무안내서, 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와 같이 정부정책 발표 및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이 논문에서는 이하 ‘원어민영어교사’로 칭한다.

치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Fulbright Program)으로 매년 약 30명의 미국 청년(학사학위 소지자)을 초청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영어회화수업과 문화교류 활동을 하였다. 1994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화 교육 추진 종합계획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면서 1995년 교육개혁 과제인 “외국어 교육 강화”, “세계화 교육 강화”의 추진에 따라 한국교육원대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 54명을 초청하여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1월에 원어민영어교사 관련 업무를 한국교육원대학교에서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는 국제화, 세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은 김영삼 정부의 교육과제로 시작되어 1994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동 사업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7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 단계적 실시’ 제도가 발표되기 시작하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의 Globalization 전략을 이어받아 교육의 세계화, 실용화 정책을 추진하며 원어민 교사의 제도가 틀을 잡게 된다[7][8].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담팀을 구축하여 EPIK(English Program in Korea)과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EPIK은 정규 학기 중 영어 회화수업에 투입될 자를 E2 비자법에 따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원어민영어교사’로 채용하고 관리하며 공교육의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전담팀(EPIK)의 원어민영어교사 초청·활용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20개 제외공관 및 16개 시·도교육청이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지도·평가를 수행하고 원어민의 배치 활용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관장하므로 사업의 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홍보 및 모집에 관련된 업무는 주로 제외공관 및 국립국제교육원이 담당하며 기타 선발 및 연수관련 업무는 EPIK에서 수행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원어민영어교사의 선발 및 관리를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어지기 위해서 EPIK와 협조체제를 이루며 경우에 따라서 ‘원어민교·강사 채용’ 전문 리쿠르트 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되는 다른 성격의 영어보조교사 ‘TaLK’ 프로그램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재외동포 및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대학생 등을 ‘영어교육 봉사 장학생’으로 선발, 초청하여 한국의 대학생들과 짝을 이루어 농, 산, 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체험과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보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초·중·고교생의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돕고 영어교사들을 위한 영어회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2 원어민영어교사 자격 기준

일반 회화지도 강사는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정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국가에서 대학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에 한정된다.

EPIK 사업의 보조교사도 일반 회화지도 강사와 비슷하게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

- 1) 영어 상용 6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의 국적 소지자
- 2)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 3) 표준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 4) 한국 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 5)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III. 연구 방법

3. 연구대상 방법 및 절차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인 협력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인천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 34명, 충남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 27명, 광주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 38명, 강원도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 28명으로 총 127명이었고 설문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한국인 협력교사의 특성

교사의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	36	28.3
	여	91	71.7
연령	20대	24	18.9
	30대	43	33.9
	40대	44	34.6
	50대	13	10.2
	60대	1	0.8
	무응답	2	1.6
	3년 미만	14	11.0
교직 경력	3-5년	35	27.6
	6-10년	14	11.0
	11-15년	18	14.2
	16-20년	12	9.4
	21년 이상	34	26.8
	35학급 이상	19	15.0
학교 규모	21-34학급	65	51.2
	15-20학급	9	7.1
	10-14학급	10	7.9
	9학급 이하	23	18.1
	무응답	1	0.8
지역 단위	특별시 및 광역시	71	55.9
	중소도시	32	25.2
	읍	11	8.7
영어 수업 진행	면	13	10.2
	모든 수업 100% 영어진행	1	0.8
	영어로 80%이상 진행	7	5.5
	영어로 50%이상 진행	41	32.3
	영어로 20%이하 진행	36	28.3
	우리말로 수업진행	21	16.5
	원어민과 협력수업만 영어로 진행	20	15.7
	무응답	1	0.8
합계	127	100.0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영어 원어민교사는 127명으로 구체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영어 원어민교사의 특성

영어 원어민교사의 특성		빈도	비율(%)
원어민성별	남	70	55.1
	여	41	32.3
	무응답	16	12.6
원어민연령	20대	57	44.9
	30대	29	22.8
	40대	8	6.3
	50대	15	11.8
	60대	3	2.4
	무응답	15	11.8
원어민수업경력	1년 미만	29	22.8
	1-2년	40	31.5

한국어능력	3-4년	25	19.7
	5-10년	14	11.0
	10-20년	2	1.6
	무응답	17	13.4
	전혀 못함	45	35.4
TESOL	하(기초적 의사소통)	55	43.3
	중(일상적 의사소통기능)	6	4.7
	상(한국어 능숙)	5	3.9
합계	무응답	16	12.6
	유	25	19.7
	무	78	61.4
	무응답	24	18.9
합계	127	100.0	

3.1 연구도구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각 설문지의 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알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모두 .70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보였다. 설문지의 각 영역별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교사 인식조사 설문지의 신뢰도

요 인	문항수	신뢰도 계수
원어민교사 운영실태	7	.770
원어민교사 수업	7	.816
학습자와 원어민교사와의 의사소통기술	6	.803
전체	20	

3.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예비조사 과정이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연구는 중학교 교사 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 모든 영역의 신뢰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11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13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하고 총 127부를 자료처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SPSS 18.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영어 원어민교사 운영실태, 영어 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 실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기술, 원어민 교사 수업의 효과, 선호수업에 대한 인식, 영어 원어민교사 수업의 효과부족 이유,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T검증,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4. 영어 원어민교사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영어 원어민교사 운영 실태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일반적인 인식은 [표 4]와 같다.

표 4. 영어 원어민교사 운영 실태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문항	M	SD
교육현장에 영어원어민교사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3.08	1.10
영어 원어민교사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67	0.99
영어 원어민교사와의 팀티칭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2.99	0.97
교육청은 영어 원어민교사 관리에 적극적이다	3.05	0.90
학교 내에서 원어민 관련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67	0.98
영어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방과 후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2.66	0.95
영어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교내 영어캠프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2.88	0.97
운영실태	20.04	4.83

[표 4]에 따르면 ‘교육현장에 영어원어민교사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의 평균(3.08)이 가장 높았고, ‘교육청은 영어 원어민교사 관리에 적극적이다’는 응답이 그 다음(3.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어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방과 후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의 평균이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1 영어 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에 대한 인식

영어 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일반적인 인식경향은 [표 5]와 같다.

표 5. 영어 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하위문항	M	SD
영어 수업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	2.85	1.00
의사소통중심 수업을 잘 이끌어 낸다	2.97	1.04
학생들의 참여를 잘 유도한다	3.06	1.07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74	1.00
학생들을 잘 통제한다	2.41	1.13
영어와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을 잘 이끌어 낸다	3.06	0.96
의사소통적으로 유의미한 질문을 많이 한다	2.93	0.96
수업인식	19.98	5.91

[표 5]에 따르면 ‘학생들의 참여를 잘 유도한다’는 문항과 ‘영어와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을 잘 이끌어 낸다’는 문항의 평균(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들을 잘 통제한다’는 문항이 평균(2.4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어 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 실시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이 영어 원어민교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원어민교사의 특성에 따른 원어민 영어수업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비교

원어민 영어교사 특성	M	SD	F	p	
원어민 성별	남	19.71	5.84	-.900	.370
	여	20.79	6.31		
원어민 연령	20대	19.91	6.06	1.299	.277
	30대	19.17	5.18		
	40대 이상	21.69	6.59		
원어민 수업경력	1년 미만	17.64	4.98	2.326	.079
	5년 이상	21.23	5.44		
한국어 능력	3-4년	21.08	7.04	2.836	.063
	5년 이상	20.38	6.69		
	전혀 못함	18.82	5.37		
TESOL	매우 기초적 의사소통 가능	21.51	5.99	1.683	.095
	일상적 의사소통 이상	18.80	7.60		
	유	21.84	6.09		
	무	19.50	6.01		

영어 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 실시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은 영어 원어민교사의 특성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 원어민교사의 성별로 보면 여교사(20.79)가 남교사(19.71)보다 높게 나타났고, 영어 원어민교사의 연령별

로 보면 40대 이상에 대한 인식(21.69)이 가장 높았고 30대에 대한 인식(19.1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어 원어민교사의 수업경력에 따른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보면 수업경력이 1-2년 집단에 대한 인식(21.2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인 집단에 대한 인식(17.6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어 원어민교사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보면 매우 기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인식(21.51)이 가장 높았고 일상적 의사소통 이상 집단에 대한 인식(18.80)이 가장 낮았다.

TESOL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수업인식(21.84)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수업인식(19.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어 수업실시 하위문항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이 원어민 교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원어민 교사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원어민교사의 수업경력에 따른 한국인 협력교사의 영어 수업인식 비교

하위문항	원어민 수업경력	M	(SD)	F	p
영어수업 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	1년 미만	2.41	(0.91) ^A	3.165	.028 [*]
	1-2년	2.85	(1.03) ^{AB}		
	3-4년	3.21	(1.06) ^B		
	5년 이상	3.06	(0.93) ^B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년 미만	2.41	(0.91) ^A	3.220	.026 [*]
	1-2년	3.15	(0.98) ^B		
	3-4년	2.71	(1.08) ^{AB}		
	5년 이상	2.69	(1.08) ^{AB}		

*p<.05

영어 수업실시 하위문항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이 영어 원어민교사의 수업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영어수업 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문항은 수업경력이 3-4년인 집단에 대한 인식(3.21)이 가장 높았고, 수업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에 대한 인식(2.41)이 가장 낮았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교직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은 3-4년, 5년 이상인 집단과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F=3.165, p<.05)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항은 수업경력이 1-2년 집단에 대한 인식(3.15)이 가장 높았고, 수업경력이 1년 미만 집단에 대한 인식(2.41)이 가장 낮았으며 이 두 집단의 차이는 F=3.220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표 8. 원어민교사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한국인 협력교사의 영어 수업인식 비교

하위문항	한국어 능력	M	(SD)	F	p
영어와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을 잘 이끌어 낸다	전혀 못함	2.87	(0.81) ^{AB}	4.385	.015 [*]
	매우 기초적 의사소통 가능	3.35	(0.95) ^A		
	일상적 의사소통 이상	2.70	(1.16) ^B		

*p<.05

영어 수업실시 하위문항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이 영어 원어민교사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영어와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을 잘 이끌어 낸다’는 문항에서 매우 기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인식(3.35)이 가장 높았고 일상적 의사소통 이상인 집단에 대한 인식(2.70)이 가장 낮았다. 사후분석 결과 이 두 집단은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었다(F=4.385, p<.05).

표 9. 원어민교사의 TESOL 자격증 유무에 따른 한국인 협력교사의 영어 수업인식 비교

하위문항	TESOL 유		TESOL 무		T	p
	M	SD	M	SD		
영어 수업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	3.32	0.99	2.69	1.02	2.718	.008 ^{**}
의사소통중심 수업을 잘 이끌고 있다	3.36	1.15	2.83	1.01	2.205	.030 [*]

*p<.05, **p<.01

영어 수업실시 하위문항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이 영어 원어민교사의 TESOL 자격증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영어 수업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 TESOL 자격증이 있는 집단에 대한 인식(3.32)이 없는 집단에 대한 인식(2.69)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T=2.718로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중심 수업을 잘 이끌고 있다’는 문항에서도

TESOL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인식(3.36)이 없는 집단에 대한 인식(2.83)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T=2.205, p<.05$).

4.2 영어 원어민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영어 원어민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영어 원어민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문항	M	SD
쉬는 시간이나 복도에서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를 만났을 때 매우 반가워한다	3.43	0.94
학생들을 좋아하고 친밀하게 대한다	3.42	0.94
학생들과 래포가 형성되어 있다	3.08	0.93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2.98	0.88
유머 감각이 있어 재미있는 수업을 한다	2.82	1.00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있고 보람을 느낀다	3.13	1.01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하며 긍정적이다	3.34	1.10
의사소통	22.18	5.60

영어 원어민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하위 문항을 보면 ‘쉬는 시간이나 복도에서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를 만났을 때 매우 반가워한다’는 문항의 평균(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들을 좋아하고 친밀하게 대한다’는 문항이 평균(3.42)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머 감각이 있어 재미있는 수업을 한다’는 문항의 평균(2.82)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영어 원어민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이 영어 원어민교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원어민교사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비교

원어민 영어교사 특성	M	SD	F	p	
원어민 성별	남	21.99	5.53	-1.063	.290
	여	23.20	6.12		
원어민 연령	20대	21.91	5.83	.598	.552
	30대	23.34	4.77		
	40대 이상	22.54	6.53		
원어민 수업경력	1년 미만	20.46	5.36	2.275	.084
	1-2년	23.00	5.08		

한국어 능력	3-4년	24.42	5.91	2.148	.122
	5년 이상	22.06	6.94		
	전혀 못함	21.53	5.87		
	매우 기초적 의사소통 가능	23.61	5.26		
	일상적 의사소통 이상	20.80	6.78		
TESOL	유	23.72	6.59	1.167	.246
	무	22.16	5.54		

영어 원어민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의 차이는 영어 원어민교사의 특성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어민의 성별이 여자일 경우(23.20)가 남자(21.99)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30대 원어민 교사집단에 대한 인식(23.34)이 가장 높았고, 20대 집단에 대한 인식(21.91)이 가장 낮았다. 영어 원어민교사의 수업경력 별로 살펴보면 수업경력이 3-4년 집단에 대한 인식(24.42)이 가장 높은 반면 1년 미만인 집단에 대한 인식(20.46)이 가장 낮았다. 원어민 교사의 한국어 능력별로 보면 매우 기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인식(23.61)이 가장 높았고, 일상적 의사소통 이상인 집단에 대한 인식(20.8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ESOL 자격증을 갖고 있는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식(23.72)이 없는 집단에 대한 인식(22.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어 원어민교사의 의사소통 기술 하위문항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은 원어민교사의 성별, 연령, 한국어 능력, TESOL 자격증 유무에 따라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원어민교사의 수업경력에 따른 한국인 협력교사의 의사소통 기술 인식 비교

원어민 수업경력	M (SD)	F	p
학생들을 좋아하고 친밀하게 대한다	1년 미만 3.17 (0.85) ^A	3.511	.018*
	1-2년 3.58 (0.87) ^{AB}		
학생들과 래포가 형성되어 있다	3-4년 3.92 (0.83) ^B	3.195	.027*
	5년 이상 3.25 (1.13) ^A		
	1년 미만 2.72 (0.92) ^A		
	1-2년 3.33 (0.94) ^B		
	3-4년 3.38 (0.82) ^B		
	5년 이상 2.94 (1.06) ^{AB}		

*p(<.05)

영어 원어민교사의 의사소통 기술 하위문항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이 영어 원어민교사의 수업경

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학생들을 좋아하고 친밀하게 대한다’는 문항에서 수업경력이 3-4년 집단에 대한 인식(3.9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인 집단에 대한 인식(3.1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방법 중 Duncan을 선택한 결과 수업경력이 3-4년 집단은 1년 미만, 5년 이상인 집단과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F=3.511, p<.05$).

‘학생들과 레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다’는 문항에서도 수업경력이 3-4년 집단에 대한 인식(3.38)이 가장 높았으며 수업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에 대한 인식(2.72)이 가장 낮음을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수업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은 1-2년, 3-4년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3.195, p<.05$).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의 원어민영어교사 활용 종합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분석 연구에서는 한국인 협력교사들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식은 영어 원어민 교사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와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잘 이끌어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원어민 교사의 특성에 관한 인식을 수업경력에서 보았을 때 1-2년 집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원어민 교사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에서는 기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일상적 의사소통 이상 집단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원어민 교사의 수업경력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3-4년 집단에 대해 영어수업 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은 1-2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영어 수업 실시 하위문항에서 원어민의 TESOL 자격증 유무에 따른 인식은 자격증을 소지한 집단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의사소통중심 수업을 잘 이끌어 내는

것도 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수업 경력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면에서는 경력 3-4년 집단이 학생들을 좋아하고 친밀하게 대한다는 인식이 높았고, 역시 학생들과 레포 형성이 가장 잘 되는 경력도 3-4년 집단으로 나타났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분석 결과는 원어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교수 능력과 더불어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레포의 형성, 수업에 대한 경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어민과의 협력적 수업은 외국어를 학습함에 있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길 수 있겠다.

하지만 원어민 교사가 한국 교육에 완전히 몰입 될 수 정책은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위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인 교사와 함께하는 적극적 협력수업과 학습자들과의 적극적 레포 형성, 그리고 질 높은 원어민 교사들의 채용을 통해 더 안정되고 효과적인 수업방안을 모색한다면 현재보다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교육과학기술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관리체제 발표”, 2008.12.29.
- [2] 경기도·인천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국회의원 질의자료”, 2010.10.11.
- [3] 권미분, “대학 원어민 영어 강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7.3, pp.411-438, 2007.
- [4] 권미분, “관광영어 수업에 있어서 원어민 교수의 자질과 학생들의 만족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제23권, 제1호, 통권 제56호, pp.591-607, 2011.
- [5] 문용, “구한말의 영어교육”, *영어교육*, 제12권, pp.1-12, 1976.
- [6] 박현주, 신경구, “원어민·비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언어불안과 모험시도에 미치는 영향”,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9.2,
pp.159-182, 2001.

- [7] 안민석,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국회보고서, 2006.
- [8] 이영화, 김선재, “영어능력과 국가 경제성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2011.

저 자 소 개

강 문 구(Mun Koo Kang)

정회원



- 1985년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문학사)
 - 1988년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05년 : 한림대학교 영어영문학
과(문학박사)
 - 2008년 ~ 현재 :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부회장
 - 2008년 : 제7차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저자
 - 2012년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영역 연구
자문위원
 - 2013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대학수학능력시험유공
자)
 - 2013년 : 교육부 영어교과 교육과정 심의위원
 - 2008년 ~ 현재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영문법, 영어교육